소녀를 위한 사랑스런 가르침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⑯ 대보적경 정신동녀회

며칠 전, 엄마 따라 법회에 나온 아이가 물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부처님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니 신보다 낮은 인간인 부처를 믿지 말라며 교회다니자 해서 속상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렴, 하늘 천, 사람 인, 스승 사. 천인사(天人師), 너희 천인사가 뭔 줄 아니? 그럼 분명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늘의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신 분은 오직 우리 부처님 한 분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 종교는 행복하기 위해 믿는 것이다. 그러니 터치(touch)하지 마."

곁에서 듣던 보살들은 웃었지만 아이는 그렇게 하겠노라며 떠났다.

어린이날이 가까워오면 항상 부처님은 어린이들을 위한 설법을 찾아본다. 라훌라가 어린 나이에 출가해 승단에서 함께 살았고, 법문을 들으려는 부모를 따라 온 어린이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가르침이 곳곳에 등장한다. 한글대장경 〈대보적경〉 119권에 제 40품의 정신동녀회(淨信童女會)의 정신동녀는 파세다닉왕의 어린 딸이다. 큰 딸이 바로 〈대보적경〉119권에 제 49품에 등장하는 〈승만경〉의 주인공인 승만이다. 부모가 항상 부처님을 의지하여 매일 법문을 들으러 기원정사로 갈 때 아들과 딸들도 함께 했었다고 한다. 정신동녀는 나이는 어렸지만 모습이 단정하니 매우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한 번 본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여 다시 보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정신은 아름다운 황금빛의 자스민꽃을 한 아름 안고서 친구들 500명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 공양 올리며 발아래 엎드려 예배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올바른 수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 힘든 이야기를 하면 때려주고 싶은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친구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법, 모든 이들을 의젓하게 만드는 법,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다 사랑하는 법, 지혜로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만나는 법, 극락세계 연꽃 위에 태어나는 법,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법, 누구를 만나도 지금처럼 행복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든 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처님은 정신동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종알종알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14가지로 질문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대답해주셨다.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부른다. 그들은 언제나 자비심으로 중생을 아껴야 한다. 아까 말한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좋다, 나쁘다는 마음 없이 동등하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8가지 법을 배우고 익히거라. 첫째는 인자한 생각을 지닌다. 둘째는 가엾이 여겨야 한다. 셋째는 항상 이익하게 하라. 넷째는 세상의 나쁜 법에 물들지 말거라. 다섯째는 이기심을 버려라. 여섯째는 고요한 마음, 선정을 닦아라. 일곱째는 몸과 목숨에 집착하지 마라. 여덟째는 나쁜 생각(번뇌)이 일어나면 무엇이 행복을 방해하는지 관찰하고 행동하거라. 이렇게 하면 미움과 사랑이 생기지 않아 자유로운 마음으로 모두 행복하게 만날 수 있다. 또 모든 부처님 앞의 연화대에 태어나려면 8가지를 잘 지켜야 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다른 이의 허물을 말하지 말며, 많은 이들을 삼보를 만나도록 교화하고, 지혜의 마음으로 살며, 언제나 청정하게 수행하며, 부처님을 조성하여 연꽃자리에 모시며, 괴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달래주고, 잘난 척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어라."

이 말을 들은 정신동녀와 친구들은 자신들을 위해 법을 설해준 부처님께 재롱잔치하듯 춤추고 노래하며 부처님을 찬탄하고 물러갔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난에게 부처님은 저 아이는 훗날 전광세계에서 광명장엄왕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하시며 즐거워 하셨다고 한다.

〈서울 반야사 주지〉

부정적인 마음도 소원 이룬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⑮ 금강경 16분의 응용 2

어째서 바람이니 소원이니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됐을까? 무엇을 하려 할 때 뜻하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잘 이루어 진다면 바랄 일도 바랄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등학교 이후 학창시절 내내 나에게는 세 가지 바람 즉 소원이 있었다. 첫 번째의 소원은 공부를 잘하고 싶었다는 소원이었고 다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기를 바라는 것과 산만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은 소원이었다. 공부 잘함, 대인관계원함, 마음의 안정 등 세 가지 소원은, 나의 행복과도 직결될 뿐 아니라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소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실력이 뒤떨어지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한데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안정될 때 각종 능력이 나오니,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세상 살아나가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 아닐까?

내 뜻이 잘 이루어 지기를 바랐던 대학생이던 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내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기를 기대하였다.

내가 아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생사해탈의 거창한 가르침도 있지만,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소박한 가르침도 있으리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불교를 하되 마음만 닦는 불교를 추구한 것이 아닌 세상에서 성공하는 불교를 원했다. 내가 추구하는 불교는 엄밀히 말해 기복불교라 할 것이다.

당시 불교계 큰 스승으로 알려진 선생님께,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적용하면 나의 세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여쭈어 본 적이 있었다.

"불교는 소원을 이룩하는데 도구로 쓰는 가르침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고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일세." 선생님께서는 내가 예상한대로 이렇게 엄숙하고 냉정하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불교란 무엇을 바라거나 구하는 가르침이 아닐세. 깨달음을 얻고 생사를 해탈하는 가르침이야!"

내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방황하고 있을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었다. 선지식께도 똑같이 질문하였다.

"불교는 소원을 이룩하는데 도구로 쓰는 가르침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고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입니까? 제가 수년 전 불교계 큰 스승으로 알려진 선생님께,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적용하면 나의 이 세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여쭈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제 소원을 이루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몇 년 전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자 마자 부처님 가르침에 깊이 빠져들어가, 각종 불경을 독송하고 할 수 있는 수행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관심의 초점은 늘 세 가지 소원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장경, 관음경을 공부하며 지장보살, 관음보살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의 세 가지 소원을 이루는 데는 별효과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지식께서는 정색을 하시며 "불가능하지 않음은 물론 너는 시시각각으로 세 가지 소원을 지금 당장 다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가지 소원이 안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네 마음속에는 세가지 소원을 바라는 마음도 존재할 뿐 아니라 소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긍정적 마음은 물론 부정적 마음도 다 소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 부정적 마음이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보고 너의 긍정적 소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부정적 마음이 소원을 이룸을 분명히 알고, 이 '안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만 제거하면 당장이라도 네 소원은 모두 이루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깨달음은 망심의 함정서 벗어나는 것

깨친자는 자유자재하여 중생처럼 업식(業識)에 끄달리지 아니한다.

〈전등록〉에 온조상서가 규봉 스님에게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수명이 다하면 어디에 의탁하는가"하고 물었다. 이에 규봉 스님은 "일체 중생이 모두 신령스럽게 밝은 각성을 갖추고 있어 부처와 다름이 없으므로, 그 바탕이 곧 법신불임을 굳게 믿고 깨달으면 본래 스스로 생(生)이 없는데 무슨 의탁할 때가 있겠는가"하고 답했다.

각성은 신령스럽게 밝고 어둡지 않아 항상 분명히 알며, 생불생(生不生) 사불사(死不死)라는 말처럼 태어나도 태어난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며, 어디서 오지도 않았고 어디로 가지도 않는다.

다만 공적(空寂)으로서 자체를 삼고 육신을 인정하지 말며, 신령스런 앎, 영지(靈智)로서 자기 마음을 삼고 망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혹 망념이 일어난다고 해도 찰라에 '이 뭣고' 로 그 뿌리를 잘라 버리고 전혀 따르지 않으면 죽을때도 저절로 그 업이 얽어 맬 수 없고, 중음(中陰)에 있더라도 가는 곳이 자유로워 천상이나 인간의 마음대로 의탁한다. 이것이 곧 진심(眞心)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 생각된다.

각성을 '이 뭣고' 로 관(觀)하고 보아 깨닫고 일상 생활속에서 행하는 것이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하는 일법(一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의 망심을 쥐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묶여져 있는 것일까?

깨달음은 이러한 망심이 만든 관념의 함정서 벗어나는 것이다. 누구나 망심을 철저하게 실감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만든 관념에 구속돼 있다는 것을 모른다. 깨달음은 우리가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구불만, 공포, 불안, 짜증, 괴로움 등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물속에 스스로 갇혀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하고 신통묘용한 한 물건을 깨닫지 못해서 생사윤회를 거듭 하는 것이다. 그 정확한 답은 오직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즉 '이 뭣고' 이다.

> **각성을 '이 뭣고' 로 관하고 보아 깨닫고 일상 생활속에서 행하는 것이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하는 一法이 되는 것이다.**

사자교인(獅子咬人) 한로축괴(漢盧逐塊)이라는 말이 있다.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그 흙덩이를 좇아 밖으로 가지만, 사자는 던진 사람한테 달려든다"는 의미이다.

온갖 망념을 좇아 경계에 끄달려 가지 말고, 생각의 뿌리인 마음을 '이 뭣고' 로 회광반조(廻光返照)하라는 말이다. 한 몸속에 있으면서도 머리로 헤아리는 분별심서 내 가슴속의 본각(本覺)자리에 이르는 가장 길고 먼 여행을 금생에 '이 뭣고' 로 끝내야 생사고(生死苦)인 육도윤회의 바다서 벗어나게 된다.

부설거사의 사부송(四浮頌)에 첫째는 처자권속이 아무리 많고, 금은보화가 산더미 같이 쌓였더라도 임종시에는 고혼만 홀로 가니 모두 다 허망한 것이고, 둘째로는 날마다 분주하게 출세길에 바쁘다가 벼슬이 겨우 높아지면 이미 인생은 백발이다. 그래서 황혼길이 가까운데 염라대왕이 사람의 벼슬 높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생각하면 역시 다 허망한 것이다.

셋째로는 마음씨가 곱고, 감정이 풍부한 시(詩)와 문장으로 천하 사람을 웃기고 울려서 가볍게 보더라도 아만심만 더할 뿐 자기의 생명을 자유로이 못하니 생각하면 또 허망하다.

마지막으로는 설법을 잘해서 구름과 비와 같이 막힘이 없고 거룩해 하늘서 꽃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능히 생사를 면치 못하니 생각하면 허망해서 뜨고 뜬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우리 중생은 무상한 것에 목숨 걸고 귀중한 생명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 뭣고' 수행을 시작하자.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5월 31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우주 생명 光(빛)의 기둥을 가슴에 세워드립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이나 기도, 명상, 참선중에 눈 앞에서 다양한 영적인 빛 기둥의 가피를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기도문과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자신만의 빛의 체험)

❶ 업장소멸, 한과 집착, 끝없는 고통의 소멸을 몸으로 체험(몸의 환골탈퇴) 눈물, 기침, 트림, 하품, 진동, 전율, 코물, 구역질, 담음, 하품, 빛의변화, 몸, 마음, 영혼의 진동주파수의 변화를 통한 삶의 대전환
❷ 인간의 3가지 고통 (1) 인간관계 (2) 금전의고통 (3) 몸의 질병의 고통 해결 기도문과 기도법제시
❸ 영적인 질환,빙의,영가장애,무속병 원인없는 질병,그 자리에서 확인
❹ 돈,사업,이혼,사별,별거,자식,취업 등의 마음상처치유 기도문
❺ 내몸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 마음, 몸을 쓰는 원리수행
❻ 가슴이 열리지 않아 수행에 진전이 없는 모든분(수십년기도하신분)
❼ **의통(심의과정)업장소멸후 의로움으로 재산환원 하실분** (심의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금조성,몸,마음,영혼을치유하는 의사 양성)
❽ **상단전(지성)+중단전(감성)+영성(단전) = 깨달음의 경지 수행**

매월 3주, 4주 토요일 2시에 공개유료강연회 (10명에 한함 2만) 업장소멸, 고통소멸 원리, 가슴이 변해야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간다. (강연후 체험 빛의 기둥)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66-8

043-296-5258 010-9242-5259

자각선원 (부설 뇌파 마음수련원) **자각선원장 자각** 합장

신화 불사 종합 안내

■ 전통한옥 법당 철거, 개축, 신축
■ 30년 경력 대목장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불모 조각장인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범종 장인이 함께 합니다.
■ 9평 산신각, 신축,특 A급 가격저렴
■ 10평 정자, 18평 법당 증축 가능 A급
■ 17평 요사채, 21평 증축가능
■ 31평 재실, 38평 법당 증축가능 A급
■ 60평 한옥 2층 증축가능 (신축)
■ 80평 요사채, 40평씩 분할가능
■ 석탑 5~7층 다수있음.(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매매 21억 (2억, 월 1천만원 세 있음)
■ 강원도 6천평 삼성각, 대웅전, 명부전, 요사채, 한옥 펜션 등 다용도 전환가능. 양도가 16억
■ 이동식 스틸하우스 30평. 설치까지 3천만원
■ 그외 다수의 사찰, 또는 매물 등이 있습니다.

010-6545-2020